

5·18 전국화·세계화 위한 9개 법률 제·개정 서둘러야

진상조사위 11개 권고사항 제시했지만 정부 “관련법 없어 이행 불가”
헌법전문 수록·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등 3개 법안은 발의조차 안돼
발의된 6개도 국회 계류 ‘감감’ ...권고사항 토대 실행 방안 마련 시급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에 제시한 11가지 권고사항을 토대로 서둘러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고사항 11가지 중 9가지 사항이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데다, 이 중 ‘5·18정신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3개 법안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18진상조사위가 국가에 5·18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세워진 사항은 한 건도 없다.

각 권고사항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 ▲5·18 외국 근절을 위한 사법조직 강화 ▲신규 확인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보상 및 2차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진상규명 특별기구 설치 및 지속 조사 ▲5·18 보상 신청·심의 상설화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군사 정훈교육 시 5·18 관련내용 포함 ▲계엄 발동 요건 강화 ▲5·18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등이 다.

특히 ‘5·18정신헌법전문 수록’과 국가 중심 기념사업·사적지 관리를 위한 ‘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항구적인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은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사안도 각 정부 부처가 ‘관련법이 없어 이

행 불가’, ‘이미 시행 중’ 등으로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재단 설명이다.

‘5·18기념사업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주도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5·18사적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와 관련, 정부는 “5·18사적지는 현행법상 현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존부가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차원의 항구적 진상규명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에도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니 국회 입법 시 추진하겠다”는 입장 뿐이었다.

5·18보상 신청·심의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제8차 보상 결과에 따라 추가 수요,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기존 보상을 연장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거부당했다.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권고에 보훈부는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행안부는 이와 관련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아 유아무아된 상태다.

국방부는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안과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유공자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안이 나왔지만, 이 중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6개 법안뿐이고 그나마도 국회에



정성 가득 오월영령 비석 닦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자원봉사자들이 1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의 비석을 닦고 추모조화를 교체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계류 중이다.

전두환, 노태우 등 현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국가폭력 가해자인 국가가 5·18 피해자 치료 지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꾸려지면, 5·18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하게 권고사항 이행과 법안 준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마터면... 10대가 버린 담뱃불에

광산구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화재...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10대 청소년이 어른들 몰래 담배를 피다가 종합병원 옆 어린이집 화재를 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린이집 건물에 원생 수십 명이 머물고 있었다.

광주광산경찰은 14일 어린이집에 화재를 낸 혐의(실화)로 10대 A군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종합병원 내 직장어린이집 건물 아래서 담배를 피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A군은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이곳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담배를 피운 뒤 재를 뒤따가 주차장 옆에 있던 재활용품 수거장에 불씨를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씨는 수거장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태우며 빠르게 커졌고, 결국 건물까지 불길에 옮겨붙었다.

건물 내에는 병원 교직원들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0여명이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다.

병원 관계자 3명은 건물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7명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불은 발생 35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차량 9대 및 4층 건물 500여㎡가 불타 3억 921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외부 CCTV를 통해 출입 인원을 파악한 결과 발화 시점에 A군을 비롯한 4명이 해당 장소를 출입한 것이 확인됐으며,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울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2명 실형

각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 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견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

(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尹 풍자 가수, 고소 취하로 불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을 올렸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으로부터 고소당한 가수가 KTV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불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은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자는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에 자신이 부른 노래를 삽입한 재가공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종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받는 피고인은 96명으로 파악된다.

사건 발생 4개월여만에 나온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위대에 대한 선고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당시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바꿔 불렀는데, KTV가 저작권·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됐다고 지난해 4월 백자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KTV가 지난달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권 침해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